

■ (추경) 2026년 우수창작공연 재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추경) 2026년 우수창작공연 재공연지원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6년 5월 21일(목) ~ 6월 1일(월) / 온라인 심의
 - (본심) 2026년 6월 5일(금)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 김서령, 김소라, 문영, 박찬영, 박해성, 신보현, 이시원, 이지은, 임종우, 임준희

(추경) 2026년 우수창작공연 재공연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환경 위축에 대응하여 기제작되어 발표된 우수창작공연의 재공연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 대표 레퍼토리 육성과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총 4개 지원분야에서 343건이 신청하였으며, 총 2억5천만원 규모의 지원예산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신청 요건 등 확인을 통해 예심과 본심의 2단계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예심을 통해 선정된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5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는 작품의 예술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의성 및 독창성, 구성의 완성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 역량,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공연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고려함과 함께, 해당 작품이 왜 다시 관객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과 재공연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연 이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공연 유통 및 관객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작 일정과 운영 계획이 실현 가능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레퍼토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분야별 예심과 통합 본심을 통해 (추경) 2026년 우수창작공연 재공연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작품은 연극 분야 2건, 무용 분야 1건, 음악 분야 1건, 전통예술 분야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품 고유의 미학과 서사를 발전시키고, 초연 이후의 성과를 토대로 재공연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제와 소재에 대한 해석의 깊이가 돋보이고, 연출·무대·배우·텍스트 등 공연의 주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완성도 높은 무대 구현이 기대되는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관객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미래 관객 개발과 관객 저변 확대는 물론 연극 장르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무용 분야에서는 장르 간 경계를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돋보였으며, 단순한 형식적 결합을 넘어 작품의 주제의식과 표현 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융합적 접근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공연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게 기존 작품의 발전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공연 계획과 추진 일정, 참여인력 구성 등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갖춘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사업 수행 역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 점 역시 주요 선정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창작자의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과 독창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예술적 실험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동시대 음악계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창작자 중심의 뚜렷한 예술관과 차별화된 음악 언어를 통해 공공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공연을 통해 작품의 예술적 성과를 보다 폭넓은 관객에게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주요 선정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전통예술의 원형과 가치를 바탕으로 동시대적 해석과 창의적 재구성을 시도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전통연희와 굿을 비롯한 전통적 소재와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으며, 심의위원회는 전통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관객과의 공감과 소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전통의 계승과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공연 레퍼토리로 발전할 가능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함께 갖춘 작품들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정된 5개 작품은 예술적 완성도와 발전 가능성, 사업수행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었으며, 재공연을 통해 보다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바탕으로 향후 유통 가능성과 관객 확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공연 레퍼토리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예술성과 발전가능성을 갖춘 작품들이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지원규모로 인해 선정대상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연예술 현장의 창작 역량과 우수 레퍼토리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공연지원 사업이 단순히 기존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예술 작품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우수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를 바라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 또한 지속적인 작품 발전과 유통 전략 고도화를 통해 향후 공연예술 생태계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수 창작공연이 안정적으로 재공연되고 보다 폭넓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어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이 선순환하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